

日本 新左翼運動의 形成과 發展*

張 達 重

I

本 論文은 戰前, 戰後를 통하여 일본 좌익운동이론과 조직의 전위집단이었던 학생운동이 70 년대를 고비로 '新左翼(New Left)' 반체제운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존재로 소멸해 간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本 論文에서의 분석은 전후 학생운동을 단순한 학생운동으로서 보다는 노동자와 일체가 된 新左翼운동속의 학생운동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전후 학생운동을 신좌익운동의 일부로 파악하고자 한 이유는 60 년대를 고비로 일본학생운동이 노동자운동과 일체가 되어 자본주의폐지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의 사회주의 혁명달성을 '舊左翼(Old Left)', 即 일본공산당이나 일본 사회당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집단의 하나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구좌익 정당, 특히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시발로 잉태된 신좌익 당파는 구좌익 당파에 대한 비판 그 자체에 의해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주장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판 만으로는 자기 존재 이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론과 실천면에서 각 당파간에 복잡한 分岐현상을 발생시켜 왔다. 60 년이후의 일본학생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신좌익당파의 分岐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新左翼의 형성과 전개 및 쇠퇴를 역사적으로 개관함으로써 학생운동의 특징적 변천을

* 이 研究는 1986 年度 文敎部 共產圏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本 論文의 중점은 일본 新左翼당과의 조직적 계보를 정리·소개하는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II

전후 일본학생운동사의 전위인 山中 明씨는 그의 著書「前後 學生運動史」에서 “학생운동은 많은 점에서 노동운동과 함께 공산주의운동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¹⁾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학생운동이 前後부터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으로 일본공산당의 지도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본학생운동의 모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1918년 東京大 法學部生들을 중심으로 한 ‘新人會’의 탄생에서 비롯된다.²⁾ 新人會는 그 활동과 멤버십을 순수 학생조직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1922년 공산당이 창설됨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하는 學生連合會(學連)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나섬으로써 1920년대 중반에는 벌써 일본공산당 청년동맹 지도하의 공산당 전위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29년, 경찰의 대량검거후 조직은 해체되었지만, 新人會는 근대 일본학생운동의 호시로 전후 학생운동의 前史를 장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후의 모든 학생운동은 1960년까지 ‘全日本 學生自治會 總連合(全學連)’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³⁾ ‘全學連’은 戰後의 ‘新人會’와 ‘學連’을 모델로 전후 최초의 학생조직이었던 ‘全國學生自治會連合’의 ‘自治會 活動’을 훨씬 넘어서는 좌익활동의 모체가 되었다.⁴⁾ ‘全學連’은 1948

1) 山中 明, 「戰後 學生運動史」(東京, 1981), p. 234.

2) ‘新人會’에 관한 문제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Henry Smith, Jr., *Japan's First Student Radicals* (Cambridge, 1972)가 있다.

3) 高木 正幸, “學生運動”, 白島 今 編, 「革新勢力」(東京, 1979), pp. 63~65.

4) 전후 최초의 학생연합조직이었던 ‘全國 學會自治會連合’은 공산당이 노동조합 조직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학생운동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학생운동

년 9월 탄생과 더불어 당시 어떤 반정부적 정치조직이나 사회단체보다도 강력한 전투적 대중운동단체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일본의 학생운동은 戰後부터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으로 공산당의 지도하에 발전되어온 숙명을 타고 났지만, 1958년경에 가면 ‘新左翼’의 탄생과 더불어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공산당과 全學連의 결별은 결코 돌발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미 1948년 대학법안 반대투쟁의 지도방침을 둘러싸고 공산당은 학생층의 투쟁에너지를 과소평가하여 ‘全學連’ 결성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1949년~50년 경에는 양자의 대립이 학생운동이론을 둘러싸고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노동자의 일부로 취급하여 학생운동을 혁명투쟁 혹은 계급투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혁명투쟁 조건형성을 위한 ‘民主統一戰線’의 一翼으로 간주한데 반해, ‘全學連’은 學生을 하나의 사회적 계층으로 위치지우고 학생운동을 혁명을 추진하는 노동자 계급의 선구 혹은 동맹군으로서 규정하는 ‘先驅性理論’을 내세웠던 것이다.⁵⁾ 이와 같은 공산당과 ‘全學連’의 견해차이는 코민포름에 의한 일본공산당 비판을 계기로, 1952년 공산당지도에 따르는 ‘全學連’의 무력투쟁노선 채택으로 해결되었던 것이다.

코민포름에 의한 일본공산당의 운동노선에 대한 비판은 공산당을 주류의 ‘所感派’와 비주류의 ‘國際派’로 양분시키게 되었는데, 전자가 코민포름의 비판에 반발한데 반해 후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即, 所感派와 國際派의 최대의 대립점은 前者가 吉田내각의 타도를 기본목표로 내세우는데 반해, 후자는 反帝투쟁을 강조했던 것이다.⁶⁾ 徳田球一

의 ‘主體性’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主體性’ 논의의 계기는 1947년 ‘2·1 제비스트(2·1 총파업)’의 실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반공산당계통 학생운동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山中, 제1장 참조

5) 高木正幸, 「全學連 と 全共闘」東京, 1985, pp. 25~26.

6) 所感派와 國際派와 대립에 관해서는, 小林 良彰, 「戰後革命運動論爭史」, 東京,

는 所感派의 대표였으며, 宮本顯治는 國際派의 대표였다. 공산당 내부의 所感派와 國際派의 대립은 국제파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던 ‘全學連’ 내부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공산당 지도부가 所感派에 의해 장악되게 됨에 따라 ‘全學連’도 공산당의 지도에 추종하는 所感派의 무력투쟁 ‘극좌모험주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그러나 1955년 7월 28일의 공산당 제 6회 [전국협의회(六全協)]는 5全協決議에 근거한 무장투쟁방침의 실효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선거패배는 대중과의 연결이 불충분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철저한 大衆路線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⁸⁾ 일본 공산당의 大衆路線으로의 방향전환과 더불어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행한 후르시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스탈린 비판은 일본좌익세력 일반은 물론 ‘全學連’의 공산당에 대한 태도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좌익세력은 ‘공산당노선’, 非스탈린주의노선의 ‘구조개혁노선’, 그리고 반스탈린주의에 의한 ‘反공산당노선’으로 갈라져 있었다. 全學連 주류는 소련과 일본공산당을 스탈린주의적 관료주의로 규정하여 ‘反帝, 反스탈린’노선에 의한 트로츠키즘에 호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1958년 全學連 제11회 대회는 “국제제국주의와 결탁한 일본독점 자본과의 대결”을 정면으로 들고 나와 ‘反美民族民主統一戰線論’을 채택하고 있던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나섰던 것이다. 공산당의 지도하에 발전해온 전후 일본학생운동이 脫공산당의 기치아래 新左翼운동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⁹⁾ 공산당에서 제명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1958년 12월의 ‘공산주의자동맹(분포)’과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革共同)’이라고 하는 反공산당조직이 탄생하여 일본학생운동은 공산당지도의 시대에서 부터 혁명적 좌익, 即 新左翼의 시대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

1980, pp. 61~62.

7) *Ibid.*, p. 81.

8) *Ibid.*, p. 109.

9) 高木, 「全學連と全共闘」, pp. 43~44.

이다.¹⁰⁾

III

혁명적 좌익, 즉 新左翼의 형성은 대체로 1957년~60년대시기의 前史的 배경을 가지고 있다. 新左翼의 잉태는 어떻게 보면 국내외적 변화물 반영하고 있는 듯 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종결(53년)과 제네바 협정(54년)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던 국제정치가 폴란드, 헝가리 사태(56년)와 알제리아, 쿠바 혁명운동(57~59년)등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른 보수지배체제의 강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좌익의 대중투쟁이 고양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砂川기지확장저지투쟁(57년), 군부평정반대투쟁(57~58년), 警職法改惡反對鬭爭(58년), 안보조약 개정저지투쟁(59~60년)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일본 新左翼당과 형성의 토대는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의 새로운 동향에 의하여 발휘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물론 이 시기에 일본공산당 내부의 논쟁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新左翼당과의 사상적 모체가 형성되어가고 있었지만,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1956년에 발생한 국제공산주의운동상의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과 이를 둘러싼 사상적 논쟁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는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비판과 함께 ‘평화공존론’이 제창되는 한편, 폴란드와 헝가리반란등에 대해서는 무력적 진압이 서슴치 않고 자행되었던 것이다. 1957년 1월 ‘일본트로츠키스트연맹’의 결성은 이와 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반발의 산물이었다.

혁명적 좌익세력은 평화공존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공산주의운동은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이 평화공존을

10) *Ibid.*, p. 44.

절대화한 나머지 “제급없는 사회주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없앨 수 없다”는 레닌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것이다.¹¹⁾ 다시 말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주요 흐름이 “평화공존 전략코스에 따라 제국주의 전쟁을 발발시키는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一國의 과제를 절대화”시키는데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국제공산주의의 운동의 움직임은 ‘12개국 선언’과 ‘평화선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결과 각국 공산당은 ‘평화공존과 一國革命的 절대화’노선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세계혁명노선의 포기는 이의 필연적 산물이었다.¹²⁾

이러한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일본트로츠키스트연맹’은 “세계 혁명의 일환으로 도래할 수 밖에 없는 일본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산당의 혁명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행동강령초안’을 결정, 그 명칭도 ‘일본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革共同)’으로 개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平和共存・一國革命노선’에 반대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노선’을 주장한 ‘革共同’의 강령초안은 공산당 지도부에 의한 조직통제와 반트로츠키즘 움직임에 의하여 공산당 내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革共同은 1958년 7월부터 다시 분열되게 되었던 것이다.¹³⁾

革共同의 혁명적 운동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新左翼 조직인 ‘共產主義者同盟(共產同: 분포)’이 탄생하게 되었다. 1958년 12월 10일 공산당에서 제명된 학생당원과 全學連지도부는 ‘共產主義者同盟’이라고 하는 공산당에서 독립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학생운동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나섰던 것이다.

‘共產同’의 결성에 미친 革共同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¹⁴⁾ 그러나 ‘분포’의 결성은 革共同의 생각대로 혁명적 左翼運動이 제대로 진

11) 小林, p. 160.

12) *Ibid.*, p. 161.

13) 戸塚, pp. 62~63.

14) 小林, p. 186.

척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革共同의 이론을 흡수해가면서 독자적인 조직을 결성했던 것은 일종의 적대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共產同’ 역시 革共同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지도부가 ‘평화공존’과 ‘一國革命’을 절대화하여 세계혁명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일본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革共同과 유사한 정치주장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별개의 당파를 형성했던 것은 국제적 권위에 대한 양자의 입장 차이에서 나타난 듯 하다.¹⁵⁾ 革共同은 제 4 인터내셔널과의 연계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반해, ‘共產同’은 일체의 국제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共產同’의 활동가들은 트로츠키에 대해서 ‘부분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전체로서의 트로츠키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제 4 인터내셔널과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레닌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革共同의 추상적 당건설에 반대하고, 현실적이고 정치적 임무를 규정한 당건설과, 현실의 투쟁을 매개로 한 당의 형성을 주창하여 ‘全學連’에 의한 대중투쟁노선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¹⁶⁾

그러나 ‘共產同’와 ‘革共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일본자본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의 차이였을 것이다. ‘共產同’은 일본좌익운동의 획기적인 사건인 60년 안보투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共產同’의 일본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진단에서 나왔던 것이다. ‘共產同’은 세계사상 최대의 공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예측하여, ‘공황→혁명→전쟁이라고 하는 격동의 주기’ 가운데 일본자본주의는 ‘공황의 전단계’에 와있다고 진단한 데 반해 ‘革共同’은 ‘제모순의 폭발’에 의한 공황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국가독점자본주의가 “주기적 공황의 고전적 폭발형태를 저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¹⁷⁾ 그

15) 戸塚, p. 64.

16) 小林, p. 187.

17) 戸塚, p. 67. 참조

려나 ‘共產同’은 1960년 후반부터 안보투쟁의 패배원인과 앞으로의 운동 투쟁을 둘러싸고 3파로 다시 분열되게 되었다. 해체된 ‘共產同’의 많은 회원들은 1960년 10월 결성된 ‘日本社會主義 青年同盟(社青同)’에 가입하여, 새로운 당파형성의 길을 모색하고 나섰던 것이다.

일본혁명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혁명적 신좌익의 분파작용을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좌익과 신좌익의 선을 구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일본의 혁명방식을 둘러싸고, 제2차 대전후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평화적·민주적 혁명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변혁의 길’을 전통적 교조주의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이 추구해야 한다는 방법론이 대립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대립은 공산당 六全協을 계기로 표면화되어 국제파에 의한 所感派의 ‘극좌파협주의’ 비판으로 결과되었지만, 이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所感派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공산당을 이탈하여 독립적 사상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¹⁸⁾

IV

1960년 안보투쟁의 패배에 의한 共產同의 분열이후 全學連은 革共同의 학생 조직인 ‘일본 마르크스주의 학생동맹(마르學同)’의 독점물이 되었다. 1957년 결성되었던 革共同은 이미 지적하였듯이 革命路線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분열되어 많은 과격학생들이 共產同에 가입함으로써 조직상의 파열상태에 빠졌으나, 1960년 안보투쟁의 실패후 이번에는 共產同의 학생들이 革共同에 복귀하여 그 학생조직인 ‘마르學同’과 全學連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⁹⁾ 그후 1963년 4월 革共同이 革命黨의 건설을 우선으로 하는 ‘革命的 마르크스주의파(革마르)’와 대중좌익을 중시하는 ‘中核派’

18) *Ibid.*, p. 68.

19) 高木, 「學生運動」, p. 80.

로 분열됨에 따라 학생조직 ‘마르學同’도 양분되게 되었던 것이다.²⁰⁾

이와 같은 일본 좌익진영의 분열은 중·소이념분쟁에 따른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에 크게 자극받은 것이었다. 1962년경 중·소대립이 표면화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완전히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공산당은 1961년 7월, 제 8회 대회에서 共產黨綱領을 결정, 일본이 당면한 革命은 사회주의革命이 아니라 “미국제국주의와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지배”라고 하는 2개의 적에 반대하는 民主主義革命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정하여 중국공산당과 友好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65년 일본공산당은 인도네시아혁명 실패후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정리, 1966년에는 대립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둘러싼 일본공산당 내부의 대립은 상당수 당원의 이탈현상을 초래시켰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일본사회당은 60~63년 사이에 江田의 ‘構造改革論爭’으로 혼돈을 거듭하고 있었다. ‘江田비전’으로 알려진 構造改革論爭은 일본사회주의의 비전으로 “높은 미국의 생활수준, 소련의 철저한 생활보장, 영국의 의회제 민주주의, 그리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들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당 좌파는 江田비전이 “천자본주의체제의 시인에 연결되는 현상보수주의로서 비사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와 우경화를 내세웠던 江田派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社會黨좌파는 1964년 12월 “일본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에의 길”이라고 하는 ‘綱領的 文書’를 발표하여 당조직의 개혁과 강화를 시도했지만, 당세의 低落은 그래도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다.²¹⁾

이와 같이 일본공산당의 당내분쟁과 사회당의 低落에 따라, “일본자본주의의 帝國主義的 再編·進出”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의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려던 세력은 구좌익 공산당과 사회당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좌익 정당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혁명적 좌익의 흐름은

20) *Ibid.*, p. 80.

21) 石川熨燈, “社會黨 民社黨”, 白鳥, 「革新勢力」, pp. 205~209.

두 개의 갈래로 형성되어 나타났다. 그 첫째의 흐름은 ‘공산주의자동맹 통일위원회’(1965년 5월)와 같이, 경제공황에 따른 세계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의 도래를 예측하여 反帝투쟁을 통한 일본 프롤레타리아혁명완수를 주장하는 폭력혁명 필연성의 집단이었으며, 다른 하나의 흐름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구조개혁을 부르짖으며, 평화적·민주적운동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가능성을 강조한 사회주의 혁신운동 당파에 의하여 대표되었다.²²⁾

이와 같이 ‘구조적 개혁’, ‘民主的 革新’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달성과와 폭력혁명을 통한 ‘共產同’의 흐름사이에서 학생운동분야와 노동운동분야에서 상당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또 하나의 흐름은 ‘革共同 全國委’의 흐름이었다. 제 1차 共產同의 ‘가두적 행동주의’를 극복하여 진정한 혁명적 전위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革共同 全國委의 주장은 1961년 ‘일본 마르크스주의 청년노동자동맹(마르靑勞同)’을 거쳐 1963년 1월에는 ‘일본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혁명적 마르크스주의파(革共同 革마르파)’와 ‘革共同 中核派’로 분열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동일한 反帝·反스탈리니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당면투쟁 및 조직전술과 당건설 방법에 관해서 대립적인 2개의 트로츠키스트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일본신좌익 파벌 가운데서도 가장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었던 革마르파와 中核派의 차이는 中核派가 ‘대중운동주의적 학습회주의’를 택한 반면, 革마르派는 이를 비판, 혁명적 캐논조직의 강화와 동시에 노동운동을 전투적·좌익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조합내의 혁명적 프랙션형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개량주의에 대비된 혁명주의의 고양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운동을 현실적으로 좌익혁명화하는 투쟁전술의 치밀화를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中核派·革마르派와는 별개로 이 시기에 등장한 신좌익의 당파 가운데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 트로츠키스트연맹’의 흐름을 이어받은 ‘제 4 인터내셔널 일본지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제 4 인터내셔널 일

22) 高木, pp. 71~72 참조.

본지부'는 당면한 反戰투쟁의 전술지도를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 급진적 가두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그룹이 분해되어 나감에 따라 계급투쟁 운동에서는 실질적인 당파로서의 운동을 떠나가지 못했으나 70년대 투쟁을 계기로 재편되어 成田투쟁에서 그 힘을 발휘했었다.

한편 共產同의 해체와 革共同의 中核派, 革마르派로의 분열상은 학생운동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革마르파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던 全學連이 1966년말 부터는 中核派와 共產同학생조직인 社學同, 社靑同解放派 등에 의해 지배되는 3派全學連으로 변모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社靑同解放派는 사회당의 의회주의체질을 비판하고, 실력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길을 모색하려던 社靑同 중에서 과격한 멤버들이 1965년 3월에 형성한 것이었다. 社靑同解放派는 '反戰・反파쇼・反合理化'를 기조로 하여 1966년 7월에는 한·일회담 분쇄투쟁과 反合理化 투쟁을 둘러싸고 일본사회당 좌파였던 '사회주의협의회'와 대립, '혁명의 세계성・폭력성'을 주창하고 나섰던 것이다.²³⁾

마지막으로 일본 공산당의 친소・반중공노선과 평화혁명론을 비난하며 등장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ML운동)'을 들 수 있다. ML운동은 일본공산당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 혁명적 중핵을 재조직하여 당의 재건을 부르짖었다는 점에서 '日共山口左派'와 유사했으나, 그 실체는 '프로혁명파'에 의하여 '宮本수정주의 체제'와 '日本山口派'를 함께 비난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1966년말경까지는 구좌익정당의 사회주의 혁명노선에 대한 불만에서 발생한 혁명적 좌익 즉, 新左翼운동이 全學連에도 영향을 미쳐 '3派全學連'시대의 도래를 맞이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이다.

23) *Ibid.*, pp. 76~78.

V

3派全學連을 중심으로 한 1967, 8년의 반전투쟁은 60년 안보투쟁이 후 허탈상태에 빠져 있던 일본학생운동의 재생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신좌익운동에 전환점을 제공하게 되었다. 高木正幸은 특히 1968년 사토수상의 월남방문저지 羽田鬭爭이 신좌익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첫째, 60년 안보투쟁에서와 같은 사회·공산통일전선의 一翼으로서의 투쟁이 아니라, 三派全學連을 중심으로 한 反戰靑年委員 등의 新左翼조류가 기성좌익·노동자세력에서 독립된 독자적 혁명좌익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과, 둘째, 권력에 대한 공격용 무기는 돌이나 자석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²⁴⁾

1967~69년의 시기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전후 브레트·우드체제의 동요가 시작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남전 확대, 소련의 체코침공, 중국의 문화혁명, 그리고 프랑스 학생운동이 가쳐온 5월 혁명 등으로 실로 정치적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국제적 격동을 반영하듯 일본의 신좌익 학생운동은 활발한 반체제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신좌익집단간의 이합집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미국의 월남전 확대에 따른 반대운동을 둘러싸고 이들의 분파작용은 더욱 혼돈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시기의 일본 신좌익학생운동의 적극성은 미국의 월맹북쪽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는 일본 구좌익정당의 '체제유지적 노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제자본주의체제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본주의체제는 정부주도형 체제정책에 의하여 고도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좌익정당, 즉 사회당과 공산당은 전투적 대중투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구좌

24) Ibid., p. 82.

익 정당의 우경적 노선에 대한 신좌익의 반체제적인 불만은 극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공산당의 입장은 트로츠키스트적 실력투쟁노선을 지양하고, 대신 질서정연한 시위운동을 통하여 ‘민족·민주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총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지극히 우경적인 노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1967년 10월 8일 佐藤수상의 월남방문저지를 위한 신좌익당파의 실력투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트로츠키스트의 책동”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사회당은 좀 좌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社會黨은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과격투쟁이 “국민다수의 지지에 의한 조직적 통일행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당의 입장과는 상치된다고 비판하면서도, 공산당이 이들의 과격행동을 탄압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그러한 탄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당은 총돌사건의 일체의 책임을 ‘反人民的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있다고 비난하고, 학생이나 노동자의 전투적 투쟁을 올바른 길로 흡수해야 할 책임을 사회당이 지니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⁵⁾ 일본사회당은 공산당의 ‘배제의 논리’에 반대하여 될 수 있는 한 “광범한 세력의 결집”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사회당의 입장도 “총선거투쟁에의 정치적 배려”를 이유로 1969년 11월 佐藤수상의 방미저지 羽田투쟁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⁶⁾

이와 같은 구좌익정당들의 의회주의적 노선은 학생의 혁명적 역량을 노동계급의 혁명적 역량보다 낮게 취급하여 학생을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中核派의 ‘先驅性論’이나 共產同의 ‘生産性理論’²⁷⁾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25) 戸塚, p. 82.

26) *Ibid.*, p. 82.

27) “共產同”의 “生産性理論”은 학생이 노동자 시민에게 위기의 경종을 울려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명이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 경제위기’의

먼저 共產同의 경우를 보면 ‘오끼나와투쟁’을 둘러싸고 ‘당파군단’의 형성과와 ‘대중적 무장행동대’의 형성과가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자는 ‘안보결전’을 ‘계급결전’으로 위치지운데 반하여, 후자는 아직 ‘계급결전’의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대중투쟁에 의한 정부타도에서 정치적 위기를 도출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共產同의 극좌분자들이 1969년 7월 ‘共產同 赤軍派’를 결성하자 共產同은 분열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共產同은 지금까지 혁명적 좌익의 통일전선적 연합체에서 ‘직업혁명당’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⁸⁾

革共同 中核派는 기본적으로 ‘대중운동의 자세’에서 이탈된 실력투쟁의 전술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나, 1967년 10월 8일 羽田투쟁이후 “국가 권력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비타협적 조직저항”은 ‘방위’라고 규정짓고, ‘현실실력투쟁’ 및 ‘가두무장투쟁’을 그 기치로 내걸고 나왔다.

革共同 革마르派의 경우는 여타 과격당파에 비하여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안보파기, 자민당정부타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革마르派는 다른 당파에 비해 크게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지금까지 社靑同·社會黨내부에서 활동해왔던 좌익·전투적 분자들은 社靑同·社會黨의 제약을 벗어나서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려는 노선을 택하고 나왔다. ‘한일회담분쇄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던 社靑同解放派는 기본적인 전술로써 가두투쟁에 모든 것을 거는 ‘소부르조아 급진주의’를 반대하고, “거점 직장에다 보편적 요구를 내거는 장기 스트라이크 돌입”을 그 전술로 들고 나왔다. 구좌익정당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국적 分派로서 ‘社靑同解放派’는 ‘革命的 勞動者協會(革勞協)’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革勞協은 결성선언에서 ‘안보분쇄·佐藤방미저지’의 정치적 요구와 함께 “공장에서부터의 반란”을 강조하는 ‘거점 정치스트라이크’를 그 전술로 내걸었던 것이다.

도대 이전에 反帝정치투쟁을 보여 위기를 주체적으로 형성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小林, pp.187~189.

28) 戸塚, p. 84.

끝으로 신좌익 학생운동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당파로는 ‘일본마르크스-레닌주의자동맹(ML 동맹)’을 들 수 있다. ‘ML 동맹’은 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도, 일본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자립을 인정하여 ‘안보분쇄, 오끼나와 해방’, ‘일제타도, 아세아 혁명승리’를 전략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1969년 가을 안보투쟁에서는 가두무장투쟁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다.²⁹⁾

이상에 열거한 신좌익 학생집단들은 통일전선의 형성을 시도하여 1966년 12월에는 共産同, 革共同, 中核派, 社靑同解放派에 의한 ‘三派 全學連’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들 신좌익당파간의 통일전선은 1967년 10월 8일 羽田투쟁이후 내부대립이 표면화되면서 三派 全學連은 결성 1년만에 분열되게 되었던 것이다. 1968년 7월 이후 中核派가 全學連을 독점하게 되자, 60년대 후반기를 통하여 ‘共闘전선’을 형성했던 ‘中核-共産同-解放派’의 ‘대중운동 제일주의그룹’과 이데올로기 투쟁과 당진설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종파적 革마르派’로 대립·분리되면서 70년대의 가혹한 ‘우치게바’사건의 토양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다.³⁰⁾ 또 社靑同解放派도 1969년 7월 독자적인 全學連을 결성하고 나옴으로써 全學連은 共産黨·民靑系·中核派·革마르派 및 解放派에 의한 ‘4개의 全學連’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신좌익 학생운동은 共産同를 중심으로 한 1960년의 안보투쟁과, 三派 全學連을 중심으로 한 1967년이후의 反戰투쟁을 거쳐 1968년 후반이후부터 1969년 사이에는 全共闘에 의한 대학투쟁 및 대중적 학생운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全共闘에 의한 학생운동은 지금까지의 共産黨系나 反共産黨系の 신좌익정치당파 중심의 학생운동과는 달리 비당파적인 학생대중의 봉기라고 하는 점에서 당시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신좌익운동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³¹⁾

29) *Ibid.*, p. 92.

30) 高木, 「學生運動」, p. 84.

31) 高木, 「全學連と全共闘」, p. 112.

왜냐하면 비당파적인 학생대중을 중심으로 폭발한 일본의 全共闘운동은 1960년대 말 서구에서 발생한 ‘뉴·레프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학생운동과는 달리 다분히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의 ‘반란’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접행동을 통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감정적으로 추구했던 것이다. 완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불완전한 사회의 모든 문제를 무시해버리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형식적 민주주의에 반발, 대중의 직접참가와 행동에 의한 민주주의적 조직의 결성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여기서 당파나 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념이나 행동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主體가 놓여지는, 즉 개개인이 자신의 결심과 책임에 의하여 전개하는 투쟁방식을 택했던 것이다.³²⁾ 다시 말하여 학생운동이 지도부에 의하여 조직되었다기 보다는 참가자 개인의 결정에 의하여 폭발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全共闘에 의한 대중운동조직은 강령이나 일관된 지도이념을 갖추지 못한 다분히 情念의인 행동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약 1년여간에 걸친 대학분쟁은 개별대학의 투쟁을 바탕으로 全共闘의 운동으로 발전되었지만, 경찰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경찰력에 의한 全共闘 운동의 진압에 대항하기 위하여 1969년 9월 5일 東京,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는 전국 178개교의 대표 2만 3천여명이 모여 ‘全國全共闘連合’ 결성대회를 개최했지만, 이 ‘全國全共闘連合’은 새로운 학생운동의 核으로서 발전하기보다는 당파색이 짙은 조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全國全共闘는 전국적인 각대학 全共闘의 자발적인 결집이라기 보다는 학생일반의 폭발적 운동열기를 이용하려는 中核派를 중심으로 한 신좌익 8派에 의한 재편의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조직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이

32) *Ibid.*, p. 124.

탈이 시작되었으며, 대학입시 조치법(1969년 8월)에 의한 각 대학의 기동경찰대 요청에 따라 全共闘 운동은 1년여를 넘기지 못하고 해체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학생운동은 다시 신좌익 당파 全學連조직으로 흡수·재편되게 되었던 것이다.³³⁾

Ⅵ

1970년을 기점으로 신좌익운동 주체로서의 학생운동은 급속히 그 세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全共闘운동의 패퇴로 인한 대중적 학생운동의 해체후, 학생운동은 노동자집단을 중심으로 한 과격신좌익운동의 일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과격학생조직의 분해, 재편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70년 이후 세계정세는 정치적으로 다극화의 재편과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에 따른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자본주의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고용문제나 노사문제같은 것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있었다. 다만, 물가, 공해, 주택 등 소비자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여 과격학생운동의 일부가 주민운동으로 흡수되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좌익당파들은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던 것이다.

우선 일본사회당은 1969년의 총선거참패를 계기로 신좌익집단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일소하고 1970년의 제33회 당대회에서는 革마르派, 中核派, 共産同, 革勞協 등과의 공동행동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反戰委’와도 절연하는 방침을 세워 反戰派의 멤버들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1969년에는 중국의 문화혁명이 절정에 달하여 劉少奇 등 실권자들의 숙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安田강당사건과 ‘三派 全學

33) 全共闘의 ‘人間的 자연’의 반란상에 대해서는 田中吉六, “人間的 自然の叛亂,” 田中吉六 et. al., 「全共闘, 解體と現在」(東京, 1984), pp. 3~28 참조.

連’, ‘反戰靑年委員會’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다. 이러한 폭력적 행동에 대한 사회당의 동정적 태도는 1969년 총선거에서의 참패로 나타났던 것이다. 사회당정체의 객관적 조건이 일본사회구조의 변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치 못함으로써 당 정체의 위기가 발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당에 의한 신좌익당파와의 관계단절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 공산당은 총선거에 있어서의 득표, 의석수의 증가에 자신을 가짐으로써 지금까지의 우경화노선의 연장에 의한 당세의 확대 및 선거활동에 최대의 역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1960년대를 통하여 정착된 의회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정치노선이 보다 분명히 표현되어 이의 실현을 위한 조직면에서의 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던 것이다. 1970년대 초기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제3세력으로서 발전한 유로코뮤니즘의 재보에 속하는 이른바 ‘고도자본주의국가의 공산당’으로 ‘선진국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내걸고 나섰던 것이다. 이것은 宮本體制가 전면 개화한 1970년 7월의 제11회 당대회를 계기로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구좌익정당가운데 공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높아졌지만 그러나 노동운동분야에서의 영향력은 그리 높은 편이 못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구좌익정당의 의회주의적 노선에 대한 반발로서 신좌익당파들은 당면 정치과제로 ‘반정부실력투쟁’을 내걸고 있지만, 1967~69년 기간의 대중적 고양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좌익당파들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다시 조직상의 동요를 보여 왔으며, 사실 적지 않은 당파들이 이 과정에서 분열내지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다.

우선 1969년 ‘日帝타도·오끼나와투쟁승리’, ‘佐藤訪美저지결전’ 등의 목표를 내걸고 ‘反帝統一戰線’을 형성하려 했던 신좌익 6派(革共同中核派, 共産同, 社勞同, 第4인터내셔널, ML同盟, 共勞黨) 가운데 革共同中核派와 第4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열내지 해체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 당시 ‘6派連合’에 가담하지 않았던 社青同解放派는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의 결성을 제창하고 나왔으나 革마르派는 어디에도 합류하지 않았었다.³⁴⁾ 그러나 여기에 합류했던 共產同은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다. 1969년 10월~11월 투쟁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한 패배였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인식에서 재출발을 시도하려는 집단이 1970년 6월 ‘右翼日和見主義者’로서 제명당한 뒤, 1970년 10월 ‘공산주의자 동맹재건준비 위원회(共產同準)’를 발족시켰다. 이에 맞선 右翼合同反對派는 共產同(中央戰旗派)을 결성했지만 이것이 다시 분해되어 關西지방중심의 ‘共產同全國委’, 東京중심의 ‘共產同(蜂起派)’, 京浜중심의 ‘共產同神奈川左派’로 각각 분열되었던 것이다. 그외에 共勞黨, 統社黨, 社勞黨 등이 각각 분열되었으며, ‘ML동맹’도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좌익당파의 분해·재편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운동의 특이한 현상은 赤軍派나 폭탄그룹에 의한 과격화 내지 무장화로의 비약이다.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赤軍’의 모체인 赤軍派는 全共闘 말기인 1969년 5월 共產同의 關西派를 중심으로 한 ‘武闘路線派’가 그때까지의 대학투쟁을 총괄하여 총이나 폭탄을 가진 군대의 조직에 의한 무장봉기를 시도한데서 발단되었던 것이다.³⁵⁾ 이와 같이 학생운동이 武裝이나 군사활동을 통하여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 현상은 全共闘 패배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학생운동의 脈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사회계층으로서의 학생운동’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³⁶⁾ 대중성의 상실에 따른 신좌익 학생당파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은 1970년대 학생운동을 특징지은 ‘우치게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³⁷⁾ 다시말하면 全共闘이후 학생운동은

34) 戸塚, p. 92.

35) 高木, 「學生運動」, p. 89.

36) 高木, 「全學連と全共闘」, p. 132. 長谷川宏, “自己否定の論理と敗北以後”, 田中吉六 et. al., pp. 235~264.

37) ‘우치게바’의 論理에 관해서는 鶴見俊輔, “リンチの思想”, 塩谷雄高, 「内ゲ

赤軍派, 連合赤軍, 日本赤軍 등 일부 과격테러집단의 등장으로 대표되게 되었을 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격 운동에서 급속히 이탈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의 대중적 학생운동은 全共闘운동을 계기로 그 실태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新左翼운동은 명실공히 학생운동으로 대표되었지만 全共闘를 계기로 학생세력은 신좌익세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권력’이나 ‘革命’은 死語가 되어버렸으며, ‘政治’와 ‘歷史’는 학생들의 사고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실로 外界人’이란 中野 收의 표현처럼 학생들의 사고는 소비문화속에 빠져들어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³⁸⁾ 따라서 학생운동 ‘10년 주기설’의 신화는 깨어지고 있는 듯하다.³⁹⁾

パの論理:デロリズとは何か」(東京, 1984)를 參照할 것. ‘革마르派’와 ‘中核派’간의 ‘우치게바’ 싸움에 관해서는 立花隆「中核 VS 革마르」上, 下(東京, 1984).

38) 中野 收, 「まるで 異星人」(東京, 1984).

39) ‘10年周期説’에 관해서는 Michiya Shimbori, “Japanese Student Activism in the 1970’s,” Philip G. Altbach, ed., *Student Politics* (Metuchen, N.J., 1981), pp. 119~136 을 參照할 것.